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으로 살고 7년부터는

자유인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좋아서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귀를 뚫고 평생 종으로 사는 법이 있었어요. (출 21장)

그 종은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이에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요.

사랑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고

높은 교육을 받았고 언어에 뛰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8)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이며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 로마에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 서바나(스페인)까지... (롬 15:23)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부르심을 입었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 생겼거나, 그렇지 않거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며

뜻은 좋은 소식(Good News) 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는 사라지고

생명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